

“땀 흘려 손수 재배한 모종 나눠드려요”

전북대 HRC 학생들, 채소·화훼 모종 15일 무료 나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우수학생 기숙형대학(HRC)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손수 재배한 6만 그루의 채소 및 화훼 모종을 지역민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오는 15일 오후 3시 대학 본부 옆 뉴실크로드센터 앞에서 개최한다.

이날 나누는 모종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학생 기숙형 대학(Honour student Residential College, HRC)’의 에코플로어 활동 학생들이 그간 비교과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파종해 재배한 것이다.

학생들은 올 1학기 시작과 함께 식물 자원을 통한 인성 교육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박병도 교수(생명자

원융합학과)의 지도를 받아 다양한 모종을 재배해왔고, 그 성과를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나누는 모종은 고추와 가지, 비트, 신선초, 케일, 방울토마토, 적치커리, 참외, 취나물, 방풍나물, 완두콩, 단호박 등의 채소와 공작초 모종 등의 화훼 등이다.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방문에 정해진 수량만큼의 모종을 받아갈 수 있다.

정기식 학생(생물산업기계공학과 2년)은 “HRC 에코플로어 활동 중 야외 실습을 통해 파종부터 새싹이 자라나

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직접 파종하고 재배한 모종을 지역사회에 뜻깊은 목적



전북대 우수학생 기숙형대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화훼 모종을 재배하고 있다.

로 나눔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모종 나눔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 혁신교육개발원HRC센터

(063-219-7965) 혹은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즐기는 것이 중요”

김승환 교육감, 이리중 방문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 격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8일 이리중학교를 방문해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전북 대표선수 및 학교관계자 등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은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월 25~28일 익산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며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1만 7천여 명이 36개 종목에 참가한다.

전북에서는 초·중학교 학생선수 804명과 지도교사 245명, 지도자 245명 등 총 1,294명이 초등학교 20종목, 중학교 35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리중학교 핸드볼·펜싱 등 대표선수 30명을 만나 일일이 악수를 하며 선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즐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빛이 나게 되어있다. 힘껏 응원하고 있으니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펜싱부 주장 신찬양 선수는 “열심히 노력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핸드볼부 주장 권재권 선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단체적인 만큼 팀워크를 이뤄 필승의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교와 훈련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번 전북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에 힘써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4개를 포함 73개의 메달획득을 목표로 한다.

기종종목의 펜싱, 양궁, 육상 체급 종목의 역도, 유도, 레슬링, 단체종목의 핸드볼(이리중), 배구(남성중)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도종목의 경우 2개 학교(순창북중, 전주용소중)에서 각 3관왕을 노리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 충북에서 개최된 제47회 대회에서 34개 종목 800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23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7개 등 전반적인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 경기력 향상을 선보인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도영 박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우수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도영 박사(치과대학)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소아치과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어린이 수면호흡 장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연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 박사는 ‘어린

이 수면호흡장애에 진단과 상악확장술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 김도영 박사는 수면호흡 장애 증상을 보이며 협착된 상악궁을 가진 어린이에서 상악 확장술을 이용한 상악 측방확장 치료 전후 수

면호흡장애 증상의 변화와 개선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상악확장치료 후 수면호흡장애 증상이 개선됐고, 일부 상기도, 즉 기도 중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등의 폭경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김도영 박사는 “어린이의 수면문제는 인식의 부족과 저평가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성장기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호흡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서원노인복지관 찾아 봉사활동 펼쳐

전주비전대(총장 홍순직) 미용건강과 학생 및 교수 20여명은 어버이날을 맞아 서원노인복지관(전주시 완산구 때박골 소재)을 찾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용건강과 봉사동아리 ‘인애자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용천사들(유학생반 봉사동아리)’은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손 마사지, 네일아트, 헤어커트 손질,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버이노래 합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 25명은 손녀·손자 같은 학생들을 통해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봉사동아리는 2002년 학과 신설과 함께 따뜻한 사회구현 및 인성교육을 목표로 봉사활동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행사 및 소외된 이들을 찾아 미용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용건강과 이효숙 교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어른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가족이 그리운 어르신들을 찾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확고된 가족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13일 실시된 2019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초졸 68명이 응시해 62명, 중졸은 223명이 응시해 175명, 고졸은 760명이 응시해 54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각각 초졸 91.18%, 중졸 78.48%, 고졸 71.18%를 보였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76세로 초졸 및 고졸 합격자 각각 1명이다. 합격증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우편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집에서 우편으로 합격증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검정고시 성적조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성적확인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장은성기자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가 2019년 상반기 항공사 승무원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꿈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이!

호원대 항공관광학과, 항공사 승무원 6명 배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항공관광학과가 2019년 상반기 항공사 승무원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호원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항공사 승무원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김이진(아시아항공), 김은(에어서울), 윤0연(에어서울), 고수(이스타항공)학생까지 총 4명은 올해 2월 졸업지며, 위0은(에어부산), 황0경(티웨이항공) 학생 2명은 각각 2018년 2월, 8월 졸업자라고 밝혔다.

호원대 항공관광학과는 2010년 신설돼 첫 졸업생을 배출해낸 그 해부터 꾸준히 항공사 승무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작년도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중국동방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에 합격했다.

항공관광학과는 매년 항공사 승무원을 배출해내면서 인기학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9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13.38대 1로 26개

전체 학부와 중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정시모집 경쟁률 또한 6.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호원대학교의 강한 경쟁력은 훌륭한 교수진 보유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일본항공의 사무장 역임 및 대통령 전용기인 CODE1 승무원 역임, 최초 여성 교육교관 역임 등 교수진들의 풍부한 경력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대학 항공관광학과 교수님들의 교육관 및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실습지도로 2019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그 해부터 매년 4~5명이상의 항공 승무원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